

이연호 칼럼 ②

생활과 윤리/윤리와 사상 선택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

ATOZ 윤리와 사상 저자 이연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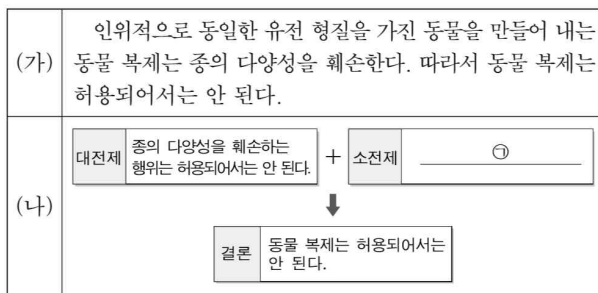
안녕하세요. ATOZ 윤리와 사상 대표저자 이연호입니다. 이번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<윤리와 사상>, 혹은 <생활과 윤리> 과목을 응시할지, 응시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. 수학능력시험에서의 문제 분포, 그에 따른 간단한 해결 방법 및 난이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여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칼럼을 통해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/ 윤리와 사상 영역에 응시하게 될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우선, <생활과 윤리>에 대한 출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. 2017 대학수학능력시험 <생활과 윤리>에서 출제된 문제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참고로 제가 분류한 ‘문제 분포’는 공식적인 네이밍이나 워딩이 전혀 아닙니다. 문제 풀이, 혹은 난이도로 접근해 보았을 때 ‘제 생각 상’으로 유형화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

Type ① : 제시문을 분석하면 답이 나오는, 국어 비문학(독서) 유형
3,4,7,9,12,13,16

3. (가)의 주장을 (나) 그림으로 나타낼 때, ㉠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동물 복제는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동물을 생산한다.
- ② 동물 복제는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.
- ③ 동물 복제는 인위적 유전자 조작으로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.
- ④ 동물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간 복제로 진행된다.
- ⑤ 동물 복제는 인간의 권익을 위한 특정 종만으로 생태계를 재편한다.

제시문을 분석한 후 전제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선지로 고르면 되는 평이한 문제입니다.

위의 문제에서 ㉠에 들어갈 말(위와 같은 전제 문제는 삼단 논법을 활용합니다)은 “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” 겠죠? 이에 대한 반론을 넣으면 되므로 “동물 복제는 종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다”의 뜻을 담고 있는 ㉡번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

다음은 전형적인 문제 유형, 즉 “제시문 내에서 선지들이 소거되는” 문제입니다.

16. 다음 글의 입장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책임이 종교에 있다. 종교들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세계 평화는 시작된다. 인류는 평화보다 전쟁을, 화해보다 광신을, 대화보다 우월성을 부추기는 종교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. 이 세계에 차별의 윤리, 모순의 윤리, 투쟁의 윤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생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.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,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.

— < 보 기 > —

- ㄱ. 종교들이 공유하는 가르침의 실천은 화합과 공존의 토대이다.
- ㄴ. 종교 간의 관용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.
- ㄷ. 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현실 세계의 갈등과 무관하다.
- ㄹ. 보편 윤리의 실현과 종교의 단일화는 인류 생존의 조건이다.

다음 글의 입장이 생전 처음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풀어봅시다.

글의 기조 자체에서 “종교 간 대화, 종교의 평화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냄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
㉠선지는 “종교들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세계 평화는 시작” 됨을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.

㉡선지는 “ 모순의 윤리, 투쟁의 윤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생존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, ~~~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.”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
㉢㉣선지도 위와 같이 단순히 독해로 소거해낼 수 있습니다.

어때요, 이런 유형들은 처음 봐도 풀 수 있죠?

아무래도 Type ① 유형의 문제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 과목을 선택하시는 듯합니다. 풀이에 큰 어려움이 없고 중학교 도덕문제같은 느낌이

없잖�아 있기 때문입니다.

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은 Type ①의 문제들이 **비교적 학습 부담이 없는, 시험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주지하시면 되겠습니다.**

하.지.만! 이런 문제들만 나오느냐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철학자들의 논리를 이해해야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들도 나오는데, 저는 이 문제들을 Type ②라고 칭하겠습니다. 올해 수능에서는 밑의 문제들이 이러한 유형들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.

Type ② : 철학자의 사상, 혹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이할 수 있는 유형

1(실천규범윤리학),2(여성윤리),5(니부어),6(죽음윤리),8(시민불복종)
10(사형제),11(아도르노와 벤야민),14(정의 전쟁론),15(환경윤리)
17(베버와 요나스) 18(노직, 롤스, 아리스토텔레스), 19(가치 중립성), 20(해외원조)

여기서 설명을 덧붙이자면, Type ②의 유형들은 “윤리와 사상”문제 유형의 99%에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윤리와 사상>은 Type ①과 같이 제시문만 분석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극히 적습니다. 사상가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풀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<윤리와 사상>과목의 학습량 자체가 당연히 <생활과 윤리>보다 많습니다. 학습량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매니아층이 두터운 <윤리와 사상> 과목은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“50점 짜리”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봐야할 EBS, 기출 분석 책들을 계산하면 결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과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. Type ②의 유형으로서 생활과 윤리에는 11 ~ 12문제가 출제되는데, 흔히들 “킬러 문제”라고 불리는 문제는 이 중에서 한 두 문제정도입니다. 윤리와 사상에는 약 16~17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Type ②로 출제됩니다. 다만 그 중 한 두 문제를 빼고는 기본적인 뼈대 개념을 알면 풀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.

아직 개념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수능의 Type ②유형의 문제를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. 다만, 어려운 문제들이 “어려운” 방식과, 당시 수험생들이 “났었던” 대략의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이런 것들을 살펴보고,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수험장이라는 긴장 속에 함정들을 잘 피하실수 있으신지 냉정하게 판단하신 후 생활과 윤리 과목을 선택하실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.

■ Type ② - 1 : **듣도 보도 못한, 생전 처음 보는 개념이 처음 나올 경우!**

- 흔히들 말하는 “지엽 개념”입니다. 수능에서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올 때 가지는 심적 부담감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.
- 하지만 이러한 지엽 개념들이 정말로 “생전 처음”보는 개념일까요? 역대 킬러 문제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. EBS 곳곳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그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만,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문제지뿐만 아니라 해설지까지 모두 챙겨보아야 하기 때문에 학습량이 많아진다는 부담감이 늘어납니다.
- 오르비에서 수험생분들이 “생운 하지마라, 생운 하지마라”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. 50점을 받으려면 결국 이 지엽을 잡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, 이를 위해서는 EBS를 말그대로 분해하듯이 공부해야 하는데 결코 시간이 적게 걸리지 않겠죠. 그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재도 효과적으로 출판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구요.
- 이러한 고난이도 출제방식은 <윤리와 사상>, <생활과 윤리> 마찬가지로입니다. 또, 밑에 제시할 Type ②-2 역시 <윤리와 사상>, <생활과 윤리> 영역에서 고난이도 선지로 출제됩니다. 그렇다면, Type ②-2는 어떤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■ Type ②-2 : **말장난으로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경우**

- 국어, 수학, 영어를 치고 정신이 없을 수험생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 같은 낯시 문제들이 우수수 등장합니다.
- 이러한 낯시 방식에는 다양한 루트들이 있지만, 대표적인 예시로서 “모든 “어떠한”을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.
- 위의 낯시 코드에 대해서는 “이연호 칼럼 ① (http://orbi.kr/bbs/board.php?bo_table=united&wr_id=9819372&sfl=wr_subject%7C%7Cwr_content&stx=%EC%9D%B4%EC%97%B0%ED%98%B8) 에서 서술한 바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.
-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. “어떤 가수는 발라드 가수”이다. 라고 하면 맞는 명제이지요? 그런데 이 명제를 “모든 가수는 발라드 가수”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. 틀린 명제가 될 것입니다. 지금 이렇게 보기에 이것이 어찌 어려울 수 있는 선지가 되리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의 칼럼을 읽어보신다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

실제로 올해 오답률 90%에 육박하는 문제가 이러한 코드를 이용해서 출제 되었구요.

- 위의 방식은 학생들을 낚는 수 없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. 그걸 설명한 것이 저 칼럼이구요. 다만 저 낚시 방식들이 “수능에 뜬금없이 갑자기” 나오지는 않습니다. 6월, 혹은 9월에서 낚시 패턴에 대한 예방 주사를 놓아주는 편인데, 그것을 잘 감지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저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.
-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, 2018수능 개정을 위해 출판될 <ATOZ 윤리와 사상>, 그리고 종이책으로 출판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e-BOOK의 형태로라도 출간하게 될 <ATOZ 생활과 윤리>는 Type ②의 해결을 위해 저자가 영혼을 깎아 서술한(!) 책입니다.
- 우선 책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2014년 EBS 내용, 2015년 EBS 내용, 2016년 EBS 내용, 그리고 올해 추가 될 2017년 EBS 내용까지 총 4개년에 달하는 “지엽” 및 “기본”개념 내용을 “모두”서술합니다.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하나 하나 모조리 서술하여 단 1점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교재의 목표입니다.
- 기본적인 개념 내용은 “교과서”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“심화개념”은 수백편에 달하는 논문에서 추출하여 서술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과 지엽 개념에서 충분하게 그 내용을 채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.
- 이것에 추가하여, 어려운 평가원 기출문제 및 교육청 기출문제를 실어 적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합니다. 다시 말해서, 수험생이라면 수능을 치기 전에 반드시 풀어보아야하는 필수적인 문제, 고난이도 기출문제를 모두 다룹니다. 자연스럽게 낚시 수법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질 것입니다.
- 하지만 기출 문제는 이미 풀어본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“실전력”을 기르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의 낚시 코드를 반영하여 제작한 자작 문제들을 실을 예정입니다. 특히나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환경 윤리, 사형제 파트의 문제들에서 최고난도 문제를 제시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■ 결론

이상 <생활과 윤리>, <윤리와 사상>과목을 내년에 응시할지, 하지 않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은 오르비의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지만 오후 10시 이후 yhkentlee(카카오톡)으로 질문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